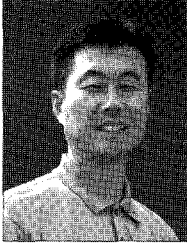


2009년도 각 분야별 결산 - 종계 · 부화

# 몸(다리)은 제자리, 마음만 앞섰던 종계 · 부화업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학교 운동회에 아이들을 따라 갔을 때 흔히 겪는 일 중 하나가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다가 짧다는 생각 하나로 불쑥 달리기 종목에 출전해 있는 힘을 다해 뛰다 보면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다리)은 제자리에서 맴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다. 금년 한 해의 종계, 부화업계가 이와 똑같지 않았나 생각한다. 연초 2,200원이 넘어가는 닭 값은 마음이었던 셈이다. 새해 출발부터 높은 닭 값은 몸보다 마음을 앞서가게 만들었다. 금년 평균 닭값은 대략 2,000원대에 육박했으니 바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있어서 문제였다. 종계의 생산성 저하는 무거운 다리였다. 높은 닭 값에 의한 입식증가와 종계의 생산성 저하로 결국은 병아리 수요가 많아지면서 연 평균 700원에 육박하는 병아리가격이 형성된 채로 금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이 되었다. 지난 한 해 우리 종계 · 부화업계에는 어떠한 이슈와 변화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 고자 한다.

## 1. 종계 농장의 생산성 저하

2007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온 종계농장에서 생산성 저하는 금년에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계획했던 병아리의 생산 차질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생산성 저하는 곧 병아리의 품질저하로 이어졌고 품질저하는 육계농장에서의 생산성 저하로 직결된다.

또한 예전에 없었던 전염성 빈혈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육계농장에서의 문제 발생이 많아서 부화장이나 계열사와 육계농장 간에 많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로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종란 가격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고가의 병아리 가격형성 지속으로 인해 빠르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종계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격에 관계없이 사업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 병아리 가격의 고공지속

금년은 대부분의 계열사가 닭 값의 상향 안정으로 인해 병아리 수요가 증가했고, 종계장의 생산성 저하는 부화업계 사상 최고의 평균 병아리 가격을 형성했다.

## 몸(다리)은 제자리, 마음만 앞섰던 종계·부화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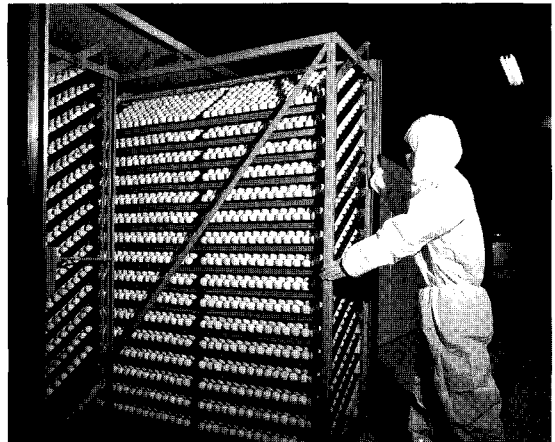


하지만 대부분의 종계장들은 계열사나 큰 부화장들과 종란납품계약을 함으로써 병아리 가격과는 무관하게 생산성 저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만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서 병아리 수요가 함께 증가하여 강세가 유지되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병아리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생산성이 낮아져서 실제 수요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모순이 나타났던 해였던 것 같다. 종계·부화업계는 실리로 따지자면 득이 크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 3. 닭 값과 병아리 가격의 상향 안정화

닭 값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계열사업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 요인 중의 최대 목표인 생산비 인하와는 상반되게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했다.

당분간 이 같은 영향 때문으로 닭 값과 병아리 가격은 고공안정화에 접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다.

필자는 지난 10월 로스아시아지역 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계산물 가격이 고가안정화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세계경제는 매우 불투명한 행보를 거듭해왔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는 원화까지 약세를 보여 경제 선진국에 비해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다.

우리 육계업계는 종계와 사료를 수입하는 입장이고, 환율 변동에 따라 닭고기 수입량이 변화를 보이는 면이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

2009년도 각 분야별 결산 - 종계 · 부화

## 몸(다리)은 제자리, 마음만 앞섰던 종계 · 부화업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생산비를 낮추어가려는 노력을 더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있어 경기변동은 매우 어렵게 얽혀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생산비를 낮추어가려는 노력을 더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 4. 종계(PS) 수입

장기간에 걸친 병아리 공급부족 현상은 종계구매의 과잉으로 이어졌고 원종계(GPS) 농장에서도 생산의 한계로 인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수년 동안 없었던 종계수입이 되고 있다.

이는 곧 내년의 병아리 생산과잉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종계장 운영으로 인해 병아리 가격이 높아지자 종계 수입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결국 몸통은 움직이지 않는데 다리만 제자리에서 튼 꼴이 되었던 것 같다. 내년에 얼마간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 과잉생산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5. 닭고기 수입의 꾸준한 증가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상승하여 금년 1월에는 1달러 당 원화가 1,379원을 기록한 후 계속 강세 행진을 거듭하여 급기야 3월에는 1,575원의 고점을 찍은 후 9월에 들어서 1,196원대로 낮아졌다가 11월초 현재 1,160원대로 접근했다.

육계업계로 볼 때는 환율상승은 닭고기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 다행인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로 출발했던 금년 1월을 바닥권으로 하여 매월 일정량씩 다시 닭고기의 수입량은 국내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꾸준하게 늘어왔다.

향후 연속되는 대외무역 흑자와 국내 증시로의 달러유입이 늘어날 경우 외환보유고 증가로 환율은 현재보다 안정권으로 접어들어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예측을 감안해 보면 당장 연말부터 내년 한해 동안 닭고기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 <img alt="decorative arrow icon" data-bbox="555 898 585 913"/>